

지역 매 아리

부안농협, 농촌일손돕기 구슬땀

부안농협(조합장 김원철)이 지난 6일 휴일을 반납하고 일손이 부족한 관내 영세농가, 고령농가, 부녀자농가를 대상으로 농촌일손을 도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부안 농협은 이날 영농자재 및 유류를 판매하는 필수요원을 제외한 60여 전 직원이 농사철을 맞아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안농협 관내 부안읍, 동진면, 백산면, 주산면 일대에서 농촌의 일손돕기를 펼쳤다.

부안 농협 직원들은 부안읍에서는 부안읍 내 오리 이순자 소유 오디 1,000㎡, 내요리 안병운 소유 오디 900㎡, 내요리 한 선자 소유 오디 1,500㎡수확 동진면 봉황리 양천 소유 마늘 1,000㎡, 주산면 신희리 김용래 소유 양파1,600㎡ 수확, 백산면 죽림리 박희수 소유 1,000㎡ 오디를 수확하는 등 구슬땀을 흘렸다.

부안읍 내요리 한선자조합원은 "휴일도 잊은 채 조합장님을 비롯하여 오디수확을 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 드린다"면서 고마움을 표하였다.

/부안=이옥수 기자

고창경찰서, 학교·가정 밖

청소년 발굴 청소년상담센터 협의

고창경찰서(서장 김성재) 여성청소년계는 최근 고창청소년상담센터 2층 상담실에서 학교·가정 밖 청소년 일제 발굴을 위한 협의회를 가졌다.

학교·가정 밖 청소년은 사회적 관심의 사각지대에 있어 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범죄 비율이 높은 학교·가정 밖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발굴연계가 필요하다.

여성청소년계는 교육청·학교 등 관계기관과 협력, 학교·가정 밖 청소년 정보공유, 아웃리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적극적 체계적 발굴활동을 전개하고, 발굴한 청소년은 전문가 등 연계를 원칙으로 하며, 폭력사건 피해자, 동종 재범자 등 위기청소년은 면담대상자로 지정 및 집중면담을 실시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유관기관 간담회, 합동 아웃리치 등 지역사회 관심도 제고를 할 계획이다.

고창경찰서 안성관 생활안전교통과장은 "단 한명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과제이고 의무라는 말이 있다"라며 학교를 나온 청소년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더 확대되고, 학교와 경찰, 가정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것도 때문이라면서 학교·가정 밖 청소년들이 학교·가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단풍관광 자원 기반 구축

정읍시, 10억원 투입 2020년까지... 단풍나무 4500여본 심어

국도 1호선 감곡면 통석리~입암면 등천리에 이르는 36.5km

단풍의 고장 정읍시가 지속적으로 단풍나무를 심고 가꾸는데 주력하고 있다.

시는 "시목(市木)이자 정읍 제일의 관광자원인 단풍나무를 심고 가꾸으로써 전국 제일 단풍고장으로서의 이미지를 이어감은 물론 단풍관광 자원 기반을 구축해가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해 시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10억원을 투입해 국도 1호선 정읍구간인 감곡면 통석리에서 입암면 등천리에 이르는 36.5km에 약 4,500여본의 단풍나무를 심을 계획이다.

시는 첫 해인 올해 3억여원(국비 50%, 시비 50%)을 들여 감곡면 통석리에서 태인면 오봉리에 이르는 14.1km에 단풍나무 650본을 심었다.

시는 이와 별개로 단풍나무 가로수 보식사업으로 수성보건소~삼화타운, 신태인초등학교 주변 등 결식 구간도 보식을 마쳤다.

한편 시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 간 19억원을 투입해 내장천변 자연거길과 다양한 산책로, 내장

산 경내와 단풍생태공원에 단풍나무 2,311본을 심는 등 단풍나무 조성과 명품화 등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는 모두 59개 노선 163.6km, 2만8,298본으로 이중 단풍나무는 천변로와 관동도로 등 13개 노선 51.8km, 8,404본으로 32%를 차지해 정읍이 단풍의 고장임을 입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주꾸미 자원 산란장 조성

자원 회복·어민소득증대 앞장

부안군은 주꾸미 자원 회복과 어장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난 5일부터 3일 간 변산과 위도 연안에 주꾸미 자연 산란장을 조성했다.

주꾸미는 우리 나라 전 연안에 분포하며 수심 5~50m 정도의 모래~자갈 바다에서 비교적 흔히 발견되는 다리를 포함한 몸통길이 12cm 전후의 중형 문어류이다.

우리 나라 바다 가운데 서해에서 상대적으로 서식밀도가 높으며 지역에 따라 짙고고등의 빈 패각을 이용해 어획하기도 한다. 더욱이 불철 제철음식으로 미식가들의 입맛을 돋울 뿐만 아니라 불철 어민들의 주 소득원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귀한 수산자원이다.

이를 위해 군은 불철 주꾸미 산란기를 비롯한 연중 조업과 남획으로 산란기 앞컷은 물론 어린 주꾸미까지 무분별하게 포획되고 있어 최근 전국적으로 주꾸미 어획량이 급속히 감소돼 주꾸미 자원 회복을 위해 해양수산부에서는 지난 5월 11일~8월 31일까지 주꾸미 금어기를 신설해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부안군은 주꾸미가 알을 낳고 번식하게 될 필로고동 어구를 변산면 대항리 연안과 위도면 형제섬 연안에 전년도 6만여 개에 이어 올해도 9만여 개를 확대 설치하고 오는 7월 말까지 격포, 대항어촌계에서 관리하고 철거할 계획이다.

/부안=이옥수 기자



부안군은 지난 5월부터 3일 간 변산과 위도 연안에 주꾸미 자연 산란장을 조성했다.

부안해경, 해상 유해화학물질 사고 초동대응 역량 강화

부안해양경찰서(서장 박상식)는 격포항 남 방파제 북방 2마일 해상에서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대비 각 기능별 유기적인 협력과 현장 초동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훈련을 했다.

7일 유해화학물질운반선이 정박 중 기상불량으로 닻이 풀리며 압초에 접촉되어 선체 및 탱크가 경미파괴로 이소알코올 약 5t가 해상으로 유출된 상황을 가정했다. 이소알코올이란 화재폭발의 위험성이 있으며, 두통과 현기증, 혼수상태를 일으키는 물질로 C급 보호복을 착용해야하는 물질이다. 이날 훈련은 화학물질사고대응정보 앱을 활용해 사고상황을 전파한다고 시작해 유출물질 탐지 및 대응정

보 전과, 경계구역 설정과 항행선박 통제, 추가 유출방지 및 확산차단, 유출물질 회수 및 제독, 폐기물 처리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경비정, 변산12539, 위도 파출소 연 안구조정, 122구조대, 해양오염방제과 직원 약 20명, 선박 6척을 동원했다.

연해규 해양오염방제과장은 "해상에서 위험유해화학물질 운반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관계기관 간 사고대응 협력체계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려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해양환경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안=이옥수 기자

고창군, 음식물쓰레기 개별계량기 추가 설치

고창군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을 위해 2013년부터 RFID방식 음식물쓰레기 개별계량기 설치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군은 올 상반기까지 총 157대를 설치해 공동주택과 아파트 4772세대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RFID방식 음식물쓰레기 개별계량기는 여름철 악취, 해충 등 비위생적인 관리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공동주택과 아파트 주민 불편을 줄이는 한편, 버린 만큼만 부과하는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6일 울릉도에서 '2018 남북·북미 평화 정상회담 성공기원 독도사랑 콘서트' 개최했다.

정읍시여성민방위대, 독도 안보 탐방

2018 남북·북미 평화 정상회담 성공기원 독도사랑 콘서트 개최

정읍시는 현충일인 지난 6일 울릉도 동동항공원에서 동북아 평화와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2018 남북·북미 평화 정상회담 성공기원 독도사랑 콘서트(Dokdo Love Concert to pray for the success of 2018 Inter-Korea·North·America Summit)를 가졌다.

콘서트에서는 정읍시여성민방위대(이하 여성민방위대)가 준비해 온 우리의 소원은 통일, 독도는 우리 땅, 아름다운 강산, 만남, 서울의 찬가를 개사한 독도의 찬가 등 국내 가요와 국악을 2시간 동안 선보였다. 특히 울릉군이 장소 사용과 전기공급 등 행사를 지원해 의미를 더했다.

여성민방위대는 일본 정부 각료의 독도 영유권 주장 망언이 있따

리고 일본 문부성이 왜곡된 일본 검정교과서를 교육현장에 전면 보급을 허용하는 등 주권침해가 발생하자 이에 대항하여 지난해부터 2018 정읍시여성민방위대 독도·동해 안보 탐방(2018 Jeongeup Women's Civil Defense Unit East Sea of Dokdo Security Site Visit) 프로젝트를 가졌다. 탐방단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운영했다. 이선심 여성민방위대장은 "지난 4월부터 2차에 걸친 남북 평화 정상회담과 오는 12일 열린 예정인 북미 평화 정상회담이 성공을 거둬 한반도의 평화번영과 동북아 평화공존시대를 여는 역사적이고 성공적인 회담이 되길 바라는 온 국민의 염원을 담아 콘서트를 열었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이상길 정읍시의원 후보, 현충일 정읍천변 평화활동 봉사

정읍시의원선거 사전거부(초산동,시기동,상교동) 민주당 이상길(1-나) 후보가



지난 6일 현충일을 맞아 거리유세를 미루고 환경정화 활동에 나서 주민들로부터 호감을 얻고 있다. 이상길 후보는 당일 아침 선거 사무실들과 함께 선거기간에도 불구하고 선거홍보 음악과 거리유세 대신 정읍천변에서 쓰레기를 줍는 등 '행동으로 실천하는 믿음직한 후보' 면면을 보여줬다.

이상길 후보는 반갑게 손을 흔들어 주는 주민들에게 "이번 선거는 나라

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를 세우는 선거"라면서 "현충일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뜻을 기리고 새겨 봉사하고 애국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활동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다짐했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 '정읍'을 상징하는 보름달 피켓을 제작, 이색 선거전으로 유권자들의 표심을 사로잡고 있는 이상길 후보는 <준비된 믿음직한 시의원을 모토로 젊고 역동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비전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시기, 초산, 상교동을 정읍의 행복1번지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힌 이상길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정읍천 깨끗이 활성화 ▲추억의 청수동길 만들기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Advertisement for Mulberry Wine (Gangsanmyeongju) featuring various gift sets and product images. The ad includes the text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and lists several gift set options with prices and quantities.